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안

(천병태, 이효상 의원 공동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7
----------	------

발의연월일 : 2016. 9. .

발 의 자 : 천병태, 이효상 의원
외 9명

1. 주문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정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은 주민고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행 유지토록 조치 바랍니다.

2. 제안 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조사 결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약 50%감소(1.842→0.942km²)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소음피해는 그대로이며 훈련용비행기 운항으로 체감 소음이 높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3. 이송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조사 결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약 50%감소(1.842→0.942km²)되었습니다.

비행기 운항 횟수는 줄었다고 하나 대당 비행시 그 소음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음피해를 분명히 받고 있음을 귀청도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도 있습니다.

훈련용비행기 운항으로 새로운 민원이 귀 기관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공항 활성화 대책과 운항 예정인 유스카이 항공 수요도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중 그 적용 예로 고시 면적이 10%이상 감소할 경우 축소고시 검토추진(주민고충반영)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재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부산지방항공청은 주민의견 수렴시 나온 여론대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민고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행 유지토록 조치 바랍니다.

2016년 9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